

# 오피니언

## 데스크 시각

정 후 식



### 지역예산 수천억 증발

#1 지난 8일 오후 국회 중앙홀. 한나라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진들이 들어서자 민주당 측은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겹겹이 스크립을 찼다.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민의의 전당'은 고풍과 욕설, 비명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3시간여의 승강이 끝에 의장석을 장악한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통과에 걸린 시간은 단 5분. 예산안은 3년 연속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2 지난달 10일 새벽 광주시 공산구 우산시장 인근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예정지, (주)삼상테스코가 우회 입점을 위해 집기류 반입을 시도, 천막농성 중인 시장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상생법' 통과 지연을 틈타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SSM 기습 개점을 시도했고 상당수는 성공했다. 골목 상인들은 행여 추가 출점이 이뤄질까 봐 여태껏 입점 예정지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저무는 경인년(庚寅年), 올 한 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공정사회'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건 이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은 비록 그

전의 '친서민·중도실용'과 '성장동력 회복' 기치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데 따른 차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그동안 기회 불균등과 양극화 확대, 불균형 지역정책 등 '불공정'에 신음해온 이들에게 희소식이었다. 공정사회의 조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얘기했다. 낙후된 자치단체들은 지역간 균형발전만이 공정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서민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균등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한데 이러한 논의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재발했다. 나라의 새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가 그것이다. 덕분에 국회 상임위에서 추가 확보했거나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들이 무더기로 미반영됐다. 문화콘텐츠기술훈(CT)연구원 설립과 광주주 수질개선, 경전선(광주~순천) 복선 전철화 사업 예산이 잘려나갔고,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도 증액이 좌절돼 성공 개척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의 전남도는 지난 3년간 예산

리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형님예산' '실세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13일 "본회의장 의장석의 뜬금없이 보면서 1996년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며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하를 들었지만 그것이 YS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고 일침을 놨다.

### 절차도 결과도 불공정

정부의 '공정사회' 압력에 대기업들도 말로는 중소기업과 상생을 외치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이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문제는 여전히 못 본 척이다. '동반성장'은 레토릭(修辭)일뿐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패권주의가 관건이다.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도심권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변종 SSM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혈안이 돼 있다.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기습 개점은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 모두 잃었다. 절차도 결과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악순환이 올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총선과 대선이 머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정경부장> who@kwangju.co.kr

## '날치기' 공정사회는 없다

안의 여당 단독처리로 수천억 원의 국고 지원 지역예산이 증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후된 지역발전의 밑천과 균형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 민생예산들도 대거 누락됐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년 해도 클리크를 하다 보면 친구는 그야말로 친구의 친구를 엮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왜 우리는 '친구 찾기'에 나서고 '알만한' 이의 친구 여부를 확인하고 많은 시간 '친구 요청'에 손품을 팔게 되는 걸까. 가슴 행한 우리 안의 어떤 목마름 같은 것이 친구의 답벼락을 찾고 댓글로 화답하게 하는 것일까. 톰 헉스 주연의 '케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주인공이 무

## 시 설

### 확산 추세 '신종플루'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 대전, 대구에 이어 광주와 장성에서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광주 동구 윤림동 양모(11)양이 복통과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겨울 들어 광주에서 첫 사례라고 한다. 또한 장성군 황룡면 월평초등학교 진모(13)군과 담양교사 양모(52)씨가 13일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격리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 환자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000명당 4.97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인플루엔자 유행 판단 기준인 2.9명 보다 높지만 규모 면에서 작년의 10분의 1수준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예에서 보듯 신종플루가 호흡기로 감염되는데다 전염성이 강

한 만큼 최신의 방안은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갖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뿐이다. 주민들도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 교육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감염은 학교나 학원, 가정 등 집단 발병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방학이나 휴교도 적극 검토하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시설도 신종플루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 체제도 재점검해야 한다. 아직도 일선 병원에서는 격리병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대책을 세우되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이다.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 역시 경계의 대상이다.

### 장애인 고용 사업장 일당이 1만원이러니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받까지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임금이 하루 1만 원도 안 된다고 한다. 국비와 구비 20억 원을 들여 지난달 3일 개소한 광주시 남구 송화동의 한울가는 식품제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 30명이 고용됐다. 한울가의 운영은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모 사회복지재단이, 관리 감독은 남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 3억 원은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한울가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최근까지 약 17일간 하루 3시간씩 총 51시간을 근무하면서 20만9610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복지재단 측이 이들의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실제 수입은

점심값과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13만~14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임금이 1만 원도 채 안 되는 셈이다. 반면 일반 직원들의 월급은 장애인들의 10배가 넘는 평균 13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장인지 묻고 싶다. 물론 한울가 측으로서도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경제적 자립을 키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려면 이 기업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품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 래 원



먼저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한 장면. 엄석대의 권력과 폭력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그에게 상납을 하고 무릎을 꿇는다. 그것 이 잘못된 일인 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의 음정이 너무나도 두렵기에 아이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통제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평화롭다. 만일 이런 일이 광주의 학교들에서 일어난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었는지? 발 열 시가 되면 각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 광주시 전체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

학년 초가 되면 자율학습 참가 동의서(혹은 신청서)를 보내고,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동의함에 동그라미를 치고, 학생은 '졸업고도 자율적(?)'으로 자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길가는 학생들을 붙들고 물어 보라! 정말 자율적으로 참가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은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혹은 남들이 하나씩, 학부모는 학교에 찍혀서 뭐가 좋겠느냐는 심정으로 자율 학습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불합 의사를 밝힌 학생의 가정에 담임 교사가 전화하여 '어머님 자녀만 자습에 빠졌습니까?'라고 던지시 말하면

### 보이지 않는 폭력, 야간 자율학습

습 참가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이십여 년 전 필자의 학생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 학력고사가 수능시험으로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여러 차례 바뀌고, 광주시 교육감이 바뀌었을 텐데,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참가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실제로 예능계통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야간자습을 빼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주 시내 고등학교의 '신기한(?)' 자율학습 참가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를테면 북한 김정일의 정체에 대한 압도적 지지의 공산당 투표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진보교육을 주장하는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신지? 학교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렇게 신기한 자율학습 참가율은 모두 자율에 맡긴 결과이다. <문화평론가>

거절할 용기를 가진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행여 교육청에 문의하면 자율적 참가 권고 문서를 보냈고, 감사해하라는 수고료는 답변뿐이다. 과연 엄석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교실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 이 세 주체가 상호 작용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한 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 울타리 안에 불잡아 두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그 결과를 공부 게을리한 학생의 책임이라고 당연시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이것은 광주 최초의 '진보' 교육감에게 드리는 고언이자, 앞으로 두 자식을 광주에서 교육시켜야 할 평범한 학부모로서 양보할 수 없는 시비이다. <문화평론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핀상'을 수여 합니다. 은핀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기 고

신 선 호



자구 '친구' 하자고 보체는(?) 이때 일이 요즘 부쩍 줄을 잇더니 급기야 며칠 전 보도에 국내 '페이스 북' 가입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친구 요청, 그거 거절하거란 참 쉽지 않다. 요청 오는 것만 해도 클리크를 하다 보면 친구는 그야말로 친구의 친구를 엮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왜 우리는 '친구 찾기'에 나서고 '알만한' 이의 친구 여부를 확인하고 많은 시간 '친구 요청'에 손품을 팔게 되는 걸까. 가슴 행한 우리 안의 어떤 목마름 같은 것이 친구의 답벼락을 찾고 댓글로 화답하게 하는 것일까. 톰 헉스 주연의 '케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주인공이 무

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채널로서 시민기자,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꽃을 피워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그늘도 없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대선 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덕을 토포해 봤다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기존 언론 대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일방적인 국정홍보 활동을 펼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없게 된 부작용이 그것이다. 또 기속첨면에서는 일방적인 홍보나 허위 과장광고, 이미지 덧칠하기 등으로 '블록'이나 '언팔'을 당하기도 한

### 친구야, 통하였느냐

러 4년여 동안 자신을 놓치지 않고 끝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대화의 상대였다. 버려진 배구공에 '월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흥분하기도 하고 질문하며 귀 기울이는 그의 친구, 절친이었다. 혼자 남겨진 두려움 속에서 배구공은 그에게 내일의 태양이었고 고통스런 고독 속에서 소통은 곧 그의 숨통이었다. 소셜미디어, 관계의 망이다. 사회적 자기존재의 확인이다. 그야말로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마다 잠재된 친화욕구와 자기표현 욕구가 갖가지 첨단 퍼스널 미디어를 만나면서 개인은 프로슈머(소비자겸 생산자)로 변신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손수다'에서 이제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로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는 참이다. 소셜미디어는 기성 언론이나 주류 저널리즘의 일방적 독백을 사회적 미디어의 대화로, 그것도 쌍방향성을 넘어 여러 대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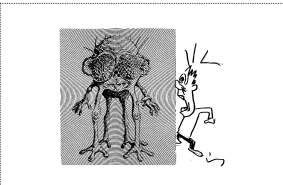
다.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에서는 공동구매자들이 약속과 다른 질 낮은 서비스, 상품을 받거나 총동구매로 후회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유기체로서 자정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참여하고 공유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며 진화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시청자주권시대 시민들의 주체적 미디어 이해와 활용능력을 지원해온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DODO려라'라는 타이틀로 마련한 릴레이특강에서 3명의 전문가가 무엇보다도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강조했다. 기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친구'보다 참된 우정이며 그 사회적 열정이 서로 모일 때 이 광대한 시대를 뚫어 미련 없는 꿈의 대화를 현실로 가늠해 하지 않겠는가 '친구'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

## 無 等 鼓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의 범주 안에서 '외계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물과 친할 것, 기본 구성원소가 탄소일 것, 그리고 자기복제가 가능한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등이다. 지난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이 같은 조건을 기본 전제로 사용해 우주에서 생명체의 발생 빈도를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냈는데, 유망한 '드레이크 방정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지구를 가진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의 수는 은하수 안에만 1만~수백만 개라는 결과와 이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성이 은하수 안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외계인'은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외계문명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져다주었던 드레이크 방정식은 그러나 지난 3월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의 발표로 수정이 불가

피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진흙에서 비소를 흡수하며 자라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NASA발표는 생명체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렸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생명체마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액체상태나 기체상태의 외계인은 물론 정선이나 형태마저 없는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 외계인의 생활상이나 정신 활동도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판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지만,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 인간 바로 곁에서 전혀 다른 외계인들이 자신들만의 우주를 꾸려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우주를 해석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온 것 같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 드레이크 방정식



### 중중·문중 납골당 설치 재정적 지원율

얼마 전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죽으면 화장을 원하고, 6.5명이 납골시설 안치를 원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사이에 화장은 약 2배, 납골시설 안치는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주 크게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중중(宗中)과 문중(門中)의 납골당 설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납골당을 만들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우선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민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등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하지만 화장후 납골묘는 사실상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치 않다고 본다. 또 납골당의 면적도 최소한 160~200㎡ 정도는 넓여줘야 한다. 한 일가의 중중 묘소가 2000㎡라고 하면 납골당으로 하면 겨우 200㎡이던 충분한 규모이다. 아울러 영위가 옮겨간 분묘 자리에는 중중·문중묘를 나무를 심어 묘토를 가꾸도록 유도하자. <▲인양천·보성군 미력면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팅국 2200-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자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